

목 차

1. 문화재 관련

- 1) 전주시,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 속도 낸다
- 2) 사도세자 친누나 화협옹주 묘 남양주서 확인
- 3) [연말기획2]경주 지진 문화재 피해... 새해 대책은?
- 4) 순천 송광사 오불도 29일 40년만의 귀환
- 5) 천황사 석가여래삼존불,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 6) [하남]금암산 신라고분군 발굴 안멈춘다
- 7)백제 성곽 방어 시설 '치' 발견...삼국시대 최대 규모

2. 학계소식

- 1) 2016 영문협 연구조사발표회 개최 알림

3. 기타

- 1) 남양주에서 출토된 조선 영조의 딸, 화협옹주의 자취
- 2) 전통문화교육원, 2017년 단기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전주시,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 속도 낸다

아시아뉴스통신 | 2016.12.28. (수)

오는 2017년 공주·부여·익산·경주 등 고도(古都)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후백제 역사 복원 추진



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주시가 2017년을 후백제 왕도(王都)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살리는 원년으로 삼고, 후백제 역사문화에 재조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후백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후삼국 시기 왕도였던 전주의 역사문화를 복원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는 후백제 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고도(古都)로서 위상을 높이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양으로 신성장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우선 후백제 관련 사업방향 정립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후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 용역을 추진,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한 단계별·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백제 도성 및 궁성으로 추정되는 물왕말과 기자촌 일원의 후백제 유적 조사를 위한 지하물리탐사도 계획하고 있다. 지하물리탐사는 지하층에 매장된 유구를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탐사하는 것으로, 시는 현재 도시화로 인한 직접적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운 관계로 물리탐사 이후 후백제 유적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유

적의 성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전주시는 후백제 역사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조사하는 기관인 후백제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정부부처와 국회,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후백제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증량감 있는 전주의 대표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해 그간 후백제의 유일한 유적으로 알려진 동고산성에 대한 8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동고산성을 국가 사적지로 승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전주시는 국립전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후백제와 관련된 궁성 및 도성을 찾는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백제 역사 전문가로 구성된 후백제 역사문화 다올마당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천년전주의 역사적 근원은 후백제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2017년을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의 원년으로 삼아 전주가 공주와 부여, 익산, 경주 등과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문성주기자)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도세자 친누나 화협옹주 묘 남양주서 확인

연합뉴스 | 2016.12.28. (수)

영조가 지은 글 새긴 지석 · 청화백자합 · 청동거울 발견



남양주에서 발굴된 화협옹주 묘. [문화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영조의 딸이자 사도세자(1735~1762)의 친누나인 화협옹주(和協翁主, 1733~1752)가 이장되기 전 무덤이 경기도 남양주 삼패동에서 확인됐다.

화협옹주와 남편 신광수를 합장했던 묘로,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시신을 묻는 장소)는 남아 있으나 유골은 없는 상태다. 이들의 무덤은 현대에 남양주 진건면으로 이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남양주시와 고려문화재연구원이 남양주 삼패동 산43-19번지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화협옹주의 무덤 유적과 영조가 직접 지은 글을 새긴 지석(誌石), 청화백자합(盒, 뚜껑이 있는 그릇)과 분채(粉彩, 도자기에 칠한 연한 빛깔의 무늬) 백자 등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화협옹주는 영조와 후궁 영빈 이씨의 딸로 11세에 옹주로 봉작됐고, 그해 영의정 신만의 아들인 영성위 신광수와 혼인했다. 미색이 뛰어났다고 전하며, 후사 없이 19세에 홍역으로 사망했다.



영조가 지은 글을 새긴 지석. [문화재청 제공]



2차 발굴조사에서 나온 청화백자합과 청동거울, 목제 빗. [문화재청 제공]

이번에 발굴된 무덤은 지난해 8월 말(馬) 모양 목제 조각 파편과 한 번의 길이가 약 50cm인 석함 1개가 출토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이어 작년 11월 1차 발굴조사를 통해 백자 명기(明器, 망자의 내세 생활을 위해 함께 묻는 작은 기물) 3개가 담긴 석함 1개가 추가로 나왔고, 이달 6~15일 2차 발굴조사를 시행해 화협옹주의 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석과 석함 1개를 발굴했다.

무덤 안에 마련된 두 개의 회곽 가운데 오른쪽 회벽에서는 '유명조선화협옹주인좌'(有名朝鮮和協翁主寅坐)라는 글자가 확인됐고, 영조의 글을 새긴 '어제화협옹주묘지'(御製和協翁主墓誌) 지석이 출토됐다.

이 지석에는 앞면, 뒷면, 옆면에 394개의 글자가 있는데, 예쁜 딸을 먼저 떠나보내 슬퍼하는 영조의 마음이 담겼다.

또 2차 발굴조사에서 찾은 석함 안에서는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남아 있는 청화백자합 10점과 분채 백자 1점, 목제합 3점, 청동거울과 거울집, 목제 빗 등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려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2차 발굴조사의 석함에서 나온 도자기들은 부장품이 아니라 화협옹주가 사용했던 물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청화백자합에 담긴 물질은 성분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협옹주 무덤 유적은 사대부가와 결혼한 왕녀에 대한 장례 문화, 왕실 여인들의 생활 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한 뒤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묘의 조성방식 등을 알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말기획2]경주 지진 문화재 피해... 새해 대책은?

불교방송 | 2016.12.28. (수)



[앵커]

올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류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문화유산의 도시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많은 문화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불교 유적인 불국사 다보탑 상층부 난간석이 주저앉았고, 첨성대는 북측으로 2cm 기울었습니다.

밀양 표충사의 삼층석탑 주변 담장과 수선당 기와 일부 등도 파손됐고 남해 금산 보리암에 서도 극락전 하부의 토사가 유실되고 석축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양산 통도사는 지진과 태풍의 연이은 피해로 대응전의 기왓골이 뒤틀리고 구름다리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최근까지도 550여 차례 이상 여진이 발생해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

니다.

특히 경주 지진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이종배 / 새누리당 의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진의 피해가 복원이 힘들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중 일정부분은 구조개선 분야에 필수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와 문화재 당국은 경주 지진과 같은 재난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영남 지역 50여 곳의 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합동 점검과 피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긴급 보수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연이어 발생하는 여진으로 인한 문화재의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지진과 태풍 등의 여파로 현재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추가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찰의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재 수리 기록과 적절한 보수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대응 매뉴얼 마련과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 양혁진 / 여행·문화 전문 웹진 <트레블 라이프> 대표

[“지진이나 태풍으로 문화재나 사찰이 피해를 입는 것은 항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에 경주 지진을 보면서, 자연재해 시 문화재에 대한 보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가 자연재해로 인해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새해에도 불교계와 당국의 보다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영상편집=장준호

/류기완 기자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천 송광사 오불도 29일 40년만의 귀환

이뉴스투데이 | 2016.12.28. (수)



송광사 오불도 ©순천시제공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40년만에 송광사로 돌아온 오불도가 일반 대중에게 29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진화스님)는 29일 오전 대웅보전에서 송광사 오불도 봉안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송광사 오불도는 1725년 호남을 풍미했던 화승 의겸 스님의 주도로 그려진 오십삼불도 7폭 중 1폭이며, 송광사 불조전에 봉안되어 있었다.

1969~1970년 진행된 불조전 보수공사 과정에서 다른 전각으로 옮겨졌다가 1970년대 송광사에서 사라져 서울 인사동 골동품점으로 흘러들어갔다.

미술교사였던 로버트 마티엘리씨가 구입해 1985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 2014년 포틀랜드박물관에 오불도를 기탁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포틀랜드 박물관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조사하는 중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과 문화재청에서는 마티엘리씨와 협상을 한 끝에 기증받아 지난 2일 미국 포틀랜드에서 기증식을 갖고 14일 송광사에 돌아오게 됐다.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은 “이번 오불도 귀환으로 문화재를 지키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며, “29일 다섯 부처님을 친견하시고 다섯가지 소원을 성취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송덕만 기자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황사 석가여래삼존불,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법보신문 | 2016.12.28. (수)



천황사 석가여래삼존불상이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천황사 석가여래삼존불상이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천황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및 대좌·수미단 등 26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2월27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유형유산 21건, 기념물 3건, 무형유산 2건이다.

유형유산은 천황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불상 및 대좌·수미단, 삼천서원 묘정비, 용담향교 공적비, 박리풍 석정려, 최학부 묘비, 삼계석문 암각서, 마이산 용알일대 암각서군, 고무정, 학남정, 쌍벽루, 쌍계정, 한들공소, 두원공소, 화산서원, 학륜당, 완월루, 도장각, 어서각, 고지집, 김대거 종법사 생가, 화양산 황단이다. 기념물은 웅치전적지, 우화산 일원 유적군, 담락당 하림·삼의당 김씨 부부유지이며 무형유산은 금척무, 중평농악이다.

이들 문화유산은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됐다. 특히 천황사는 875년에 무염국사가 창건한 절로 대웅전과 애운 스님 부도가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7호, 제123호로 각각 지정돼 있다. 1995년에는 ‘師子寺(사자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신라시대 기와가 발견되기도 했다.

/신용훈 전북주재기자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남]금암산 신라고분군 발굴 안멈춘다

경인일보 | 2016.12.28. (수)

하남시 · 역사박물관, 자체예산 확보 지속적 조사



하남시와 하남역사박물관이 광암동 금암산에서 긴급발굴한 신라고분군 유적. /하남시 제공

하남시와 하남역사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하남시 광암동 산42 일원의 금암산 삼국시대 고분군에 대한 긴급발굴 조사결과 대규모 신라고분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 지속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와 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긴급발굴 조사에서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제500호), 여주 매통리 고분군(경기도 기념물 제180호)에 버금가는 신라고분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진행된 금암산 고분군은 하남 이성산성(사적 제422호)과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을 잇는 능선 상에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2000년대 초반에 지표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2005년 일부 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에서 백제 석실묘 2기와 신라 석곽묘 10기 등 삼국시대 고분들이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올해 초 역사박물관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상에 위치해 있는 고분 군락지의 파손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화재청에 문화재청 복권기금을 요청해 긴급 발굴 조사를 실시했다.

7개월간에 걸친 조사에서 신라 석실묘와 석곽묘 등 6기의 고분을 1차적으로 확인했으며, 이들 고분에서 인화문평구병, 유개완, 청동경, 청동 손가락, 철제 과대금구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발굴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금암산 고분군에 10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는 한강유역 최대의 삼국시대 신라고분군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고분이 등산로에 위치해 있어 계속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조사와 유적 보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고분군 출토 유물로 볼 때 금암산 고분군은 백제에서 신라로 이어지며 오랜 기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심연대는 7~8세기경으로 삼국 시대에 한강의 패권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쟁패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자체 예산을 확보해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최규원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 성곽 방어 시설 '치' 발견...삼국시대 최대 규모

KBS 뉴스 | 2016.12.28. (수)



<앵커 멘트>

백제의 마지막 왕도인 충남 부여의 나성에서 성곽 방어시설인 대규모 '치'가 발견됐습니다.

높이가 7미터에 이르러 현존하는 삼국시대 성곽 '치'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여 나성'입니다.

이 나성 동쪽 끝 부분에서 성벽의 바깥으로 덧대어 쌓아 적의 접근을 막았던 방어시설인 '치'가 발견됐습니다.

22.4미터 길이에, 너비 5.1미터, 높이 7미터에 이르는 '치'는 정면에서 보면 비스듬히 누운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현존하는 삼국시대 치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심상욱(백제고도문화재단) : "도성 내부라든지 도성 외부에 대한 경계 라든지 그런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치 상단에는 이처럼 넓고 평평한 공간이 남아있어 망대터 등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관련 유적이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철로 만든 화살 축 등 무기류도 대거 발견돼,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나성에 이전에도 치가 축조됐다가 확장됐을 것으로 보고, 고대의 성곽 축조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료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낙중(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복원을 잘 하면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6킬로미터 가운데, 4분의 1가량만 발굴된 부여 나성은 현재 확인된 일부분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추가 발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홍정표 기자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제1발표회장 - 다우홀>

접수 09:00~09:30

개회 - 사회 : 최은아(한국문물연구원)

개회사 09:30~09:40 정의도(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회장)

환영사 09:40~09:45 정의도(한국문물연구원장)

축사 09:45~09:50 박광춘(영남고고학회장)

연구조사발표 1 - 분묘 · 생활 · 생산유적 / 사회 : 김동숙(성림문화재연구원)

발표 1 10:00~10:25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유적 / 이진혁(세종문화재연구원)

발표 2 10:25~10:50 대구 구암동고분군 1호분 / 이재광(영남문화재연구원)

발표 3 10:50~11:15 함안 소포리 오당골 고분군 / 김동헌(경남문화재연구원)

발표 4 11:15~11:40 의성 후평리고분군 제1호분 / 류재극(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발표 5 11:40~12:05 창원 도계동 고분군 / 김성한(두류문화연구원)

점심 12:05~13:30

/ 사회 : 정현광(두류문화연구원)

발표 6 13:30~13:55 울진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 남도인(영남문화재연구원)

발표 7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확장공사(제4공구)부지내 유적 -방내리 고분군-/ 김주영
(한빛문화재연구원)

발표 8 13:55~14:20 김해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신석기시대 저습지 유적을
중심으로- / 홍성우 · 강영수(경상문화재연구원)

발표 9 14:20~14:45 경주 낭산일원 주차장 조성부지 유적 조사 성과/ 이정욱(신라문화유산
연구원)

휴식 14:45~15:00

발표 10 15:00~15:25 양산 내송리 고려시대 도기가마 연구 / 김정현(한국문화재연구원)

발표 11 15:25~15:50 함양 백운리 화과원 백자가마 조사성과 / 손병국 · 유재희(동서문화재연구원)

성과의견 15:50~16:10

<제2발표회장 - 김관음행홀>

연구조사발표 2 - 성곽 · 주거지 / 사회 : 최경규(동아문화재연구원)

발표 1 10:10~10:35 경주 도당산 토성 -경주 남산가는길(2구간)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 한승현(성림문화재연구원)

발표 2 10:35~11:00 거제 둔덕기성의 최신 조사성과 / 구형모(동아문화재연구원)

발표 3 11:00~11:25 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우회도로)내 유적 / 박성웅(한국문화재단)

발표 4 11:25~11:50 부산 낙민동 주상복합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 노재현(동양문화재연구원)

발표 5 11:50~12:15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 일원 유적 / 김현주(울산발전연구원)

점 심 12:15~13:30

/ 사회 : 김재철(대동문화재연구원)

발표 6 13:30~13:55 울진 죽변리 15-15번지 외 유적 / 이현신(삼한문화재연구원)

발표 7 13:55~14:20 경주 구어리 산65-4 유적 / 박현정(대동문화재연구원)

발표 8 14:20~14:45 포천 거사리유적 / 김영아(동국문화재연구원)

발표 9 14:45~15:10 거창 송정리유적 C지구 / 유은식(부경문화재연구원)

성과의견 15:10~15:30

폐회 - 제1발표회장 다우홀 / 사회 : 김윤희(한국문화재연구원)

<1기관 1유적 가꾸기 운동 활동사례 발표>

16:10~16:25 대구 구암동고분군 및 팔거산성 / 김동윤(영남문화재연구원)

<영남지역매장문화재보호활동 유공상 시상 및 활동사례 발표>

16:25~16:30 시상 / 정의도(영남지역조사연구기관협의회장)

16:30~16:45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 발표 / 회장 황인석

16:45~17:00 통영향토사연구소 발표 / 소장 김일룡

<2016년도 연구조사발표회 우수발표자 시상>

17:00~17:20 우수발표자 4인 시상

폐회사 17:20~17:30 / 박승규(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부회장)

남양주에서 출토된 조선 영조의 딸, 화협옹주의 자취

- 화협옹주 이장 전 묘지에서 조선 왕실 여인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명기류 등 발굴 -



<화협옹주묘 초장지 출토 전경>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허가를 받아 남양주시와 (재)고려문화재연구원(원장 김병모)이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조선 제21대 임금인 영조와 후궁 영빈 이씨의 소생인 화협옹주의 이장되기 전 무덤이 남양주시 삼패동에서 확인됐다. 참고로 화협옹주의 현재 묘는 남양주 평구마을로 이장된 상태로, 남편인 신광수와와 합장묘이다.

* 발굴 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산43-19)

화협옹주(和協翁主, 1733~1752년)는 사도세자의 친누나이며,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친고모로 11세에 옹주로 봉작(封爵)되었으며, 영의정 신만의 아들 영성위 신광수(永城尉 申光綏)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옹주는 어머니 영빈 이씨를 닮아 미색이 뛰어났다고 하며, 후사 없이 20세에 홍역으로 사망하였다.

* 봉작(封爵): 내명부, 외명부의 직위를 받음

* 하가(下嫁): 지체가 낮은 곳으로 시집간다는 뜻으로 주로 공주나 옹주가 신하와 결혼하는 것을 이룸

옹주의 묘지로 확인된 남양주시 삼패동에서는 지난 해 8월 목제 마(馬)와 석함 1개가 발견된 이후 같은 해 11월에 1차 긴급 조사 이뤄지면서 석함 1개와 백자명기 등이 추가로 수습되었다. 올해 12월에는 남양주시에서 문화재청의 긴급 발굴 조사비를 지원받아 2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화협옹주의 장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묘지(墓誌)와 지석(誌石), 청화백자합 10점, 분채(粉彩) 1점, 목제합 3점, 청동거울과 거울집, 목제 빗과 직물류가 수습되었다.

*** 지석(誌石): 죽은 이의 인적사항이나 무덤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판석 또는 도판**

*** 분채(粉彩): 명·청나라 때 행하여진 백자에 그린 그림 기법**

묘지는 회곽묘의 오른편에 ‘유명조선화협옹주인좌(有名朝鮮和協翁主寅坐)’ 라고 쓰여 있는데 회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글자 안에 먹을 채워 넣었다.

1장의 석판으로 이루어진 지석의 앞면과 뒷면, 옆면에는 총 394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오른쪽 옆면에 ‘어제화협옹주묘지(御製和協翁主墓誌)’ 라는 글이 있어 아버지인 영조가 직접 지은 글임을 밝히고 있으며, 젊은 나이에 먼저 간 자식에 대한 애절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명기는 화장품류로 추정되는 내용물로 채워진 청화백자합과 분채 등이다. 유기물 자료가 드물 뿐 아니라 조선 시대 실물자료가 거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에 발굴된 자료들은 내용물 감정과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조선 시대 왕실 여인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화장도구로 추정되는 기물도 남아 있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 명기(明器): 죽은 이의 내세 생활을 위해 무덤에 함께 부장하는 기물**

작년에 긴급조사로 수습된 석함 2개와 순백자명기, 칠기명기와 이번 2차 조사 성과물인 묘지와 지석, 석함 1개, 회곽묘 등을 통해 사대부가와 혼인한 왕녀의 상장례를 알 수 있고, 영조가 직접 쓴 묘지와 화장품 안료, 용기 등을 수습할 수 있어 학술자료로서도 매우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재청과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화협옹주묘를 더 세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전통문화교육원, 2017년 단기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 직무, 전문 등 4개 분야 42개 과정 / 연중 운영 -



<2016년 문화재 전담수사관 교육 전경>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류춘규)은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수리종사자 등의 실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2017년 단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17년 단기교육과정은 ▲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과정, ▲ 초·중등 교원 및 수리종사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 ▲ 국제 문화재 전문가 교육 및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국제과정, ▲ e-러닝 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과정 등 총 4개 분야의 42개 교육과정(직무·전문·국제 과정 분야에 22개 과정, 사이버 과정 분야에 20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연중 운영된다.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직무과정은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근대·세계유산 등 분야별로 나눠져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전문과정을 듣는 교원과 방문교사 등에게는 문화재와 역사교육을 연계시키는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1월 초, 첫 번째로 진행되는 전문과정은 전국 초·중등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와 학교교육」이다.

이외에,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감리원에 대한 문화재 수리 전문지식 함양 교육은 기존 4회에서 7회로 대폭 확대되고, 문화재 안전관리 실무지식 등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재 안전관리 과정과 무형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관리 과정도 신규로 개설된다.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되는 문화재 전담수사관 과정은 수강생들의 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통문화교육원은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지 내에 건물 2개동(지상 3층) 연면적 4,035㎡ 규모의 강의실, 세미나실, 대강당, 기숙사,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문화재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깊이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단기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 (<http://tctc.nuch.ac.kr>, 알림마당)을 방문하거나, 전화(☎041-830-1813, 78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